AIG에 850억弗 수혈…급한 불은 껐지만

美 구제금융 소식에 국내 증시 급반등, 환율 44원 폭락

유동성 문제 해결이 관건…완전 회복까진 시간 걸릴 듯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국내 금융시장이 하루만인 17일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44원이나 폭락했으며 증시도 급등세를 타면서 1,400선을 회복하는 등 미국발 쇼크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미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린 미 최대의 보험사 AIG에 8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진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 악재에 유독 민감한 국내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가 AIG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AIG 이외에 '다음 타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신용 경색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 국내외 실물 경제마저 둔화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완전한 진정세로 접어들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AIG 구제금융에 환시·증시 패닉 진정 = 이날 환율이 급락한 것은 AIG 구제금융 소식, 증시 반등 등으로 전날 시장의 '패닉' 심리가 일부 진정된데 따른 것이지만 AIG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불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200원 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증시 역시 미국 금융 불안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돌발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어 반등 추세가 이어지기 보다는 당분간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 "안정 되찾는데 시간 걸려" =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시장 곳곳에 숨겨진 지뢰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전히 잠재우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진우 NH선물 금융공학실장은 "시장 불안이 진정됐다기 보다는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이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워싱턴뮤추얼 등의 유동성 문제 해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여전히 미국 금융시장에 숨겨진 지뢰들이 있기에 이런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드러날 때 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IG 사태 고객들에 어떤 영향 줄까

지주회사 문제…자회사에는 영향 없어

재정 어려워도 기금 활용 보험금 지급

미국 CNN머니는 17일 고객들과 일반인들의 우려를 질문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AIG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 고객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 문제는 고객들과 직접 영업을 해온 자회사들이 아니라 AIG 지주회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AIG의 지주회사가 파산보호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해도 자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차질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과거 콘세코(CNO)의 지주사가 파산했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보장은.

▲보험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보험금 신청이 자산을 초과할 위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본부 소재지의 주(州) 보험감독기관이 보험사를 통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 감독기관은 보험사의 자산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 기금을 활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런 보장은 전통적인 보험 뿐만 아니라 퇴직보험에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에 제한은 있을 수 있다.

-보험을 AIG에서 다른 보험사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AIG의 보유한 채권 등급이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하향조정됐지만 AIG의 등급은 여전히 투자등급이고 AIG의 자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보험 이전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AIG에 가입할 당시의 건강상태와 현재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검토하는 게 좋다.

-AIG의 고객이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AIG는 세계 최대보험사이고 AIG의 주식은 많은 뮤추얼펀드에 들어 있다. 또 S&P 500지수와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도 편입돼 있다. AIG는 올들어 다우지수를 400포인트 이상 끌어내린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고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IG 사태의 진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AIG는 보험사이고 대출기관이 아닌데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모든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AIG는 보험금을 받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보험사들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다.

모기지 대출금 연체와 주택압류가 증가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AIG도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AIG는 올들어 9개월 동안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해 180억달러 이상의 손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美 금융 안정 찾는데 9~12개월 걸릴 것"

달라라 국제금융연합회 총재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연합회(IIF) 총재는 17일 "앞으로 9~12개월이 지나면 보다 회복력있고 강력한 금융제도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독성있는 파생상품 관련 위험은 이미 많은 부분 처리됐고 위험한 금융회사들도 점차 줄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달라라 총재는 "'리먼브러더스가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독(毒)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의 대차대조표가 얽혀있어 그 가치와 위험을 계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어도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본시장, 투자은행(IB) 역할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 자본시장의 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B는 지고 상업은행이 뜬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과도하게 레버리지가 높은 모델은 끝났지만 IB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에 역동성을 제공하는 역할로서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설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20년 전과 달리 훨씬 안정적이고 특별히 취약하지도 않은데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수출, 외환보유액, 성장률, 경상수지 등을 볼 때 위기설이 있는 나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연합회는 세계 65개국 370여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6일(미국시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에 850억달러 구제금융을 단행키로 했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 주지사(가운데)가 FRB의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한 AIG 구제금융 승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정부 결국 AIG 살리기 선택

파산 땐 금융시장·경제 심각성 고려

미국 정부는 결국 AIG를 일단 살리는 길을 택했다.

미 최대의 보험사인 AIG가 무너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기상황에 빠진 금융시장에 엄청난 타격과 후폭풍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1조1천억달러의 자산과 전세계 130개국에 7천4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AIG가 몰락하면 금융산업의 손실 규모가 총 1천800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RBC캐피털 마켓은 분석했다.

따라서 AIG의 구제는 리먼브러더스 몰락 이후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AIG 외에도 우려 대상이 되는 '다음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급한 불만 끈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IG는 지난 1·4분기 78억1천만달러, 2·4분기 53억6천만달러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다음 차례는 AIG'라는 소문이 나돌자 주요 자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4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AIG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영화를 통해 구제한 이후 부실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정부는 업계의 지원이 낫다는 판단하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에 지원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난색을 표명해 이런 방도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금융쇼크 확산 안되게 철저 대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미국발 금융쇼크와 관련,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충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특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나도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투자 상품(펀드)이라도 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물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국제유가가 20% 이상 떨어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17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어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흐름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연합뉴스